

원주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

法泉寺

2013. 11. 21.



재단법인 江原考古文化研究院

목 차

I. 조사개요	/	1
II. 유적의 위치	/	3
III. 조사방법 및 내용	/	5
1. 조사 방법	/	5
2. 층 위	/	6
3. 조사 내용	/	9
4. 출토 유물	/	17
IV. 조사성과	/	19

- 도면 차례 -

도면 1. 법전사지 사적지정범위 및 구역현황도(항공사진,2013)	/	2
도면 2. 법전사지 8차 발굴조사 유구현황도	/	7

- 지도 차례 -

지도 1. 법전사지 위치도(1:5,000 수치지도)	/	4
------------------------------	---	---

- 표 차례 -

표 1. 법전사지 기초사 현황	/	1
표 2. 조사구역 출토 동전	/	14

- 사진 차례 -

사진 1. 법전사지 전경-북서에서(항공촬영, 2013)	/	3
사진 2. 법전사지 8차 조사지역 조사후 전경(항공촬영, 2013)	/	5
사진 3. 조사구역 서편 (Ⅱ구역 그리드) 남-북 토층	/	6
사진 4. 8차 조사지역 구역현황도	/	8
사진 5. 가구역 조사 후 전경	/	10
사진 6. 가구역 1호 건물지 전경	/	10
사진 7. 가구역 2호 건물지 전경	/	10
사진 8. 가구역 3호 건물지 전경	/	10
사진 9. 가구역 3호 건물지 서편 계단	/	10
사진 10. 가구역 4호건물지 북편 석실유구	/	11
사진 11. 가구역 12호 건물지 출토 막새편	/	11
사진 12. 나구역 전경	/	11
사진 13. 나구역 9호 건물지 전경	/	12
사진 14. 나구역 9호 건물지 북편 외부시설	/	12
사진 15. 나구역 10호 건물지 전경	/	12
사진 16. 나구역 10호 건물지 서편 기단	/	12
사진 17. 다구역 전경	/	13
사진 18. 다구역 22호 건물지	/	13
사진 19. 라구역 전경	/	14
사진 20. 라구역 16호 건물지 전경	/	14
사진 21. 라구역 17호 건물지 앞 탐도	/	14
사진 22. 라구역 출토 연화대석	/	14
사진 23. 라구역 29호 건물지 서편 계단	/	14
사진 24. 라구역 31호 건물지 전경	/	15
사진 25. 마구역 전경	/	15
사진 26. 마구역 배수로 전경-서에서	/	16
사진 27. 마구역 우물 전경	/	16
사진 28. 마구역 우물서편 배수로 모습	/	16
사진 29. 기타구역 방형적심시설과 육각형 석재	/	16
사진 30. 기타구역 남쪽 경계 석열유구	/	16
사진 31. 출토유물-수막새	/	17
사진 32. 출토유물-암막새	/	17
사진 33. 출토유물-지미편	/	18
사진 34. 출토유물-중국자기	/	18
사진 35. 출토유물-고려청자	/	18
사진 36. 출토유물-조선시대 자기류	/	18
사진 37. 출토유물-금동불입상 전면	/	18
사진 38. 출토유물-금동불입상 후면	/	18
사진 39. 출토유물-청동제 말	/	18
사진 40. 출토유물-동전	/	18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원주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

2. 조사경위 및 목적

사적 제466호(2005.08.31)인 원주 법천사지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7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나말여초에 초축되어 고려전기, 고려중기 이후, 고려후기에서 조선 초기 불사가 진행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폐사되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법천사지 기초사 현황

구분	조사연도	조사지역 (면적㎡)	조사유구현황	대표유구	유 물	비 고
1차 시굴	2001.10 ~2002.07	문화재 보호구역 (61,876)	건물지19개소	부도전지	각종기와, 명문와, 청자, 중국자기, 분청사기 등	사역범위 확인 II구역 일부확장
2차 발굴	2003.03 ~2003.08	I 구역 (2,984)	건물지9개소, 계단지, 석축, 문지, 배수로	부도전지 출입문지	각종기와, 인화문토기, 고려청자, 중국자기, 조선백자, 석등부재, 현묘탑부재 등	부도전지 일대 전면 확장조사
3차 발굴	2003.09 ~2003.12	III구역 (3,076)	건물지9개소, 석축, 우물, 담장유구	회랑지	통일신라 기와·토기, 고려청·백자, 중국자기, 분청사기, 금동불입상, 금동보살상, 석탑재, 연화대석부재 등	I 구역 서편연장 III구역 확장조사
4차 발굴	2004.07 ~2004.12	III-1구역 (5,751)	건물지11개소, 석축	건물지 석실유구	각종기와, 고려 청·백자, 중국자기, 분청사기, 석조불상편, 금동제원통형금구 등	III-1구역 확장조사 (서원지 조사제외)
5차 발굴	2006.09 ~2007.09	I 구역 (2,747)	건물지20개소, 문지, 석축, 계단지, 배수로, 외곽담장	부도전지	각종기와, 인화문토기, 고려청·백자, 중국자기, 분청사기, 조선백자, 화사석편, 사자상석재 등	I 구역 정밀조사
6차 발굴	2011.05 ~2011.11	III-1구역 (1,600)	건물지7개소, 석축, 담장, 석열, 배수로, 추정문지, 추정보도	건물지	각종기와,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등	추정 서원지일대 III-1구역 남편 정밀발굴조사
7차 발굴	2012.07 ~2012.09	II 구역 (1,500)	건물지6개소, 석축, 계 단, 배수로, 담도시설	건물지	각종기와,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 동전 등	II구역 내 민가 철 거지점 발굴조사

이번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는 2001~2002년 1차 시굴조사 구역 중 확장조사가 이뤄진 II구역의 전체적인 유구양상을 확인함으로써 학술적 연구와 함께 법천사지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원주시에서 본 연구원에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년 4월 29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문화재청 허가 제2013-0232호).

3. 조사지역 및 범위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59-1번지 외 16필지(16,741㎡)

4. 조사 기간 : 2013년 4월 29일 ~ 2013년 11월 현재

5. 조사 기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6. 조사단 구성

- 단 장 : 지현병((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장)
- 자 문 위 원 : 김동현(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박경식(단국대학교 교수)
백중오(국립교통대학교 교수)
이상필(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정계옥(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연구실장)
조유전((재)경기문화재연구원장)
최병현(숭실대학교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최선주(국립춘천박물관장)
최성은(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 책임 조사원 : 윤석인((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 사 원 : 황정욱((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2팀장)
- 준 조 사 원 : 김영숙((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2팀 연구원)
- 보 조 원 : 신수화((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2팀 연구원)



【도면 1】 법천사지 사적지정범위 및 구역현황도(항공사진, 2013)

II. 유적의 위치

이번 8차 발굴조사 지역은 부론면 법천리 659-1번지 외 16필지(16,471m²)이다. 법천사지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2리 서원말의 구릉사이에 형성된 평지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12′37.92″~37°12′18.62″, 동경 127°45′39.64″~127°45′55.00″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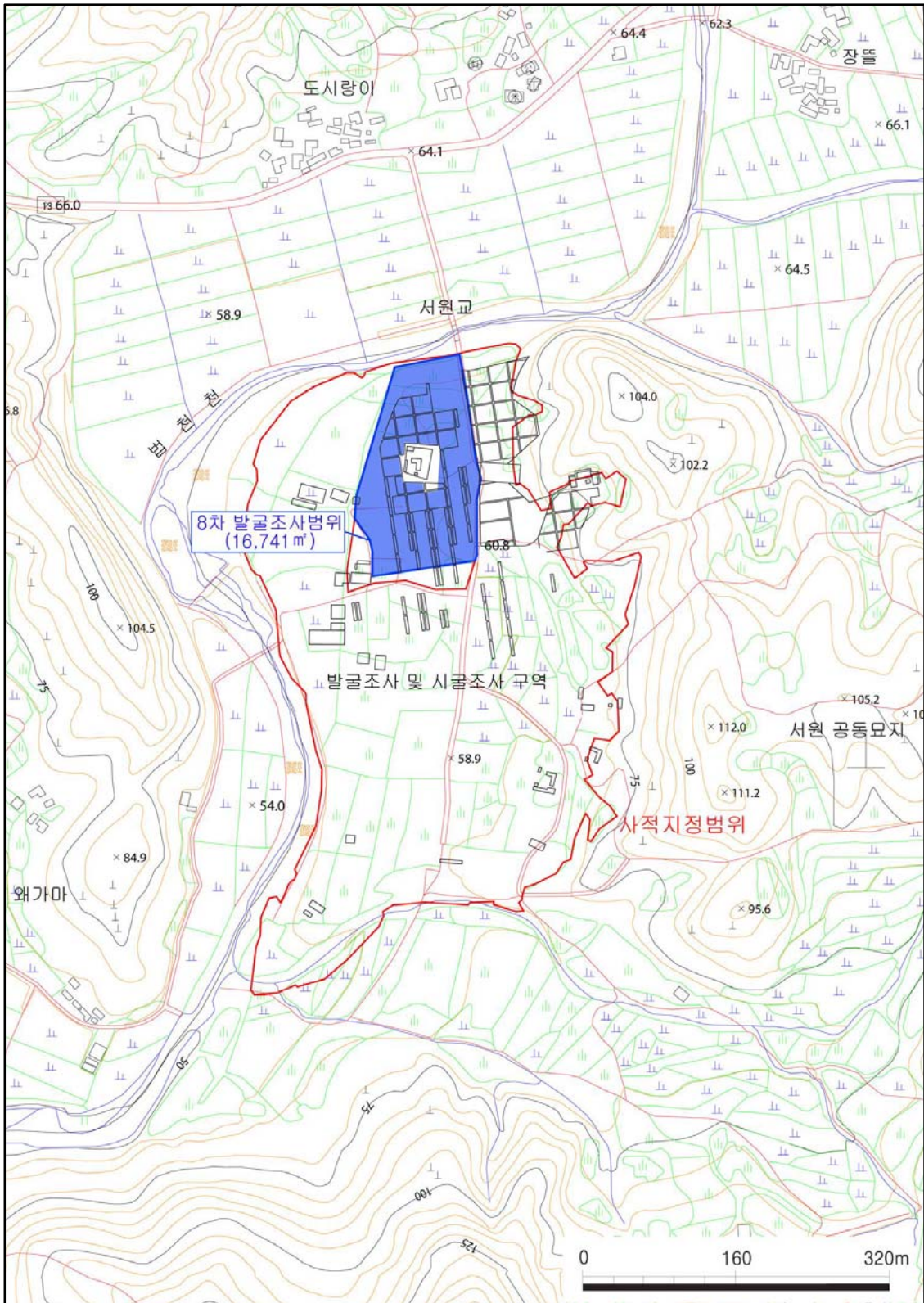
법천사지의 북쪽으로 긴경산(352.9m), 동쪽으로 현계산(535.5m), 남쪽으로는 황학산(332.0m) 등 주변에 비해 높은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법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있다¹⁾.

법천사지가 위치한 서원말은 황학산에서 흘러내린 표고 100m내외의 산록으로 둘러쳐진 약 6만여 평에 이르는 저평한 산간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강변에 연결되어 일찍부터 수운을 이용한 교통로가 발달되었다. 이곳은 강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남쪽으로 좀 떨어져서는 충청북도가 이어지는 삼도 접경지역이며 홍호리에는 옛 홍원창이 있었으며²⁾, 섬강과 남한강의 합류지점에는 넓고 비옥한 평야가 오래전부터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다.



【사진 1】 법천사지 전경 - 북서에서(항공촬영, 2013)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법천사 I』.
 2) 원주군, 1992, 『법천사지 석물실측 및 지표조사 보고서』.



【지도 1】 법천사지 위치도(1:5,000 수치지도)

Ⅲ.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이번 조사는 법천사지의 중심사역으로 추정되는 Ⅱ구역의 유구분포 양상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이다. Ⅱ구역에 대한 조사는 1차 시굴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유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였으며, 7차 발굴조사를 통해 1차 조사 당시 철거되지 않은 민가건물로 인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Ⅱ구역 중 16,741㎡에 대한 발굴조사로, 전면제토를 통해 1차 시굴조사 당시 존재만 확인된 유구들의 전체현황을 파악하여 법천사의 기본적인 가람배치형태를 밝히려는 목적과 함께 현재 조사환경에서 전체 면적을 한 번에 정밀발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조사를 위한 조사구간 분할의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목적과 조사면적 대비 조사기간의 한계로 인해 개별 유구에 대한 정밀조사는 진행할 수 없었으며, 축조수법이나 하층유구와의 중복관계 확인 등의 세부조사는 차후 Ⅱ구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진 2】 법천사지 8차 조사지역 조사후 전경(항공촬영, 2013)

2. 층 위

Ⅱ구역은 법천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층이 안정되어 있고 유구도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다. 이번 발굴조사 구역은 Ⅱ구역의 중앙부분으로 기존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층을 참고로 하였으며, 조사구역의 서편에 지표가 잔존하는 남-북 그리드 독을 이용하여 조사구역의 토층을 확인하였다. 법천사지 7차 발굴조사의 주요유구 출토층위는 표토면에서 약 80cm 이하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토층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층 : 명갈색 사질점토 (표토층)

제Ⅱ층 : 흑갈색 사질점토 (상층유구문화층, 제Ⅰ층보다 점성과 밀도가 높음)

제Ⅲ층 : 황갈색 사질점토 + 적갈색 사질점토 (소토와 기와 매립층, 구지표 상층)

제Ⅳ층 : 황색 사질층 (하층유구포함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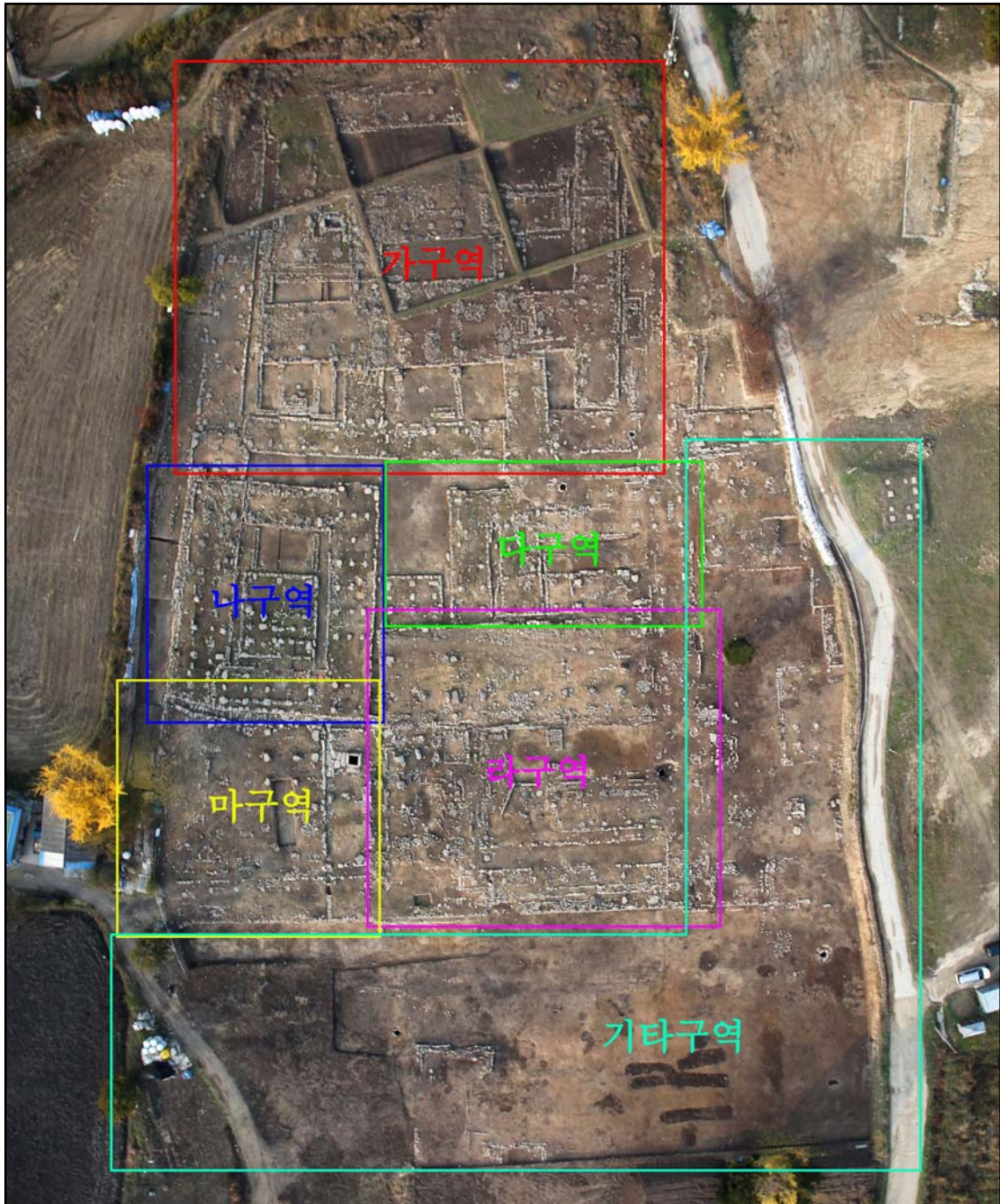


【사진 3】 조사구역 서편 (Ⅱ구역 그리드) 남-북 토층

제Ⅱ층은 상층유구문화층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유구가 존재하며 Ⅱ구역의 남쪽에 위치한 유구가 포함된 층이다. 조사구역에서는 남쪽의 동-서로 이어지는 석축이 포함되어 있는 층이다. 제Ⅳ층은 법천사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의 유구 포함층으로 고려전기와 중기의 유구가 존재한다. 이번 조사구역의 대부분의 유구가 위치하는 층이다. 제Ⅳ층의 상층인 제Ⅲ층은 제Ⅳ층의 유구가 화재로 인해 소실된 후 소토와 폐기와 등을 배수로나 마당 상부로 일정 높이 이상 인위적으로 매립된 층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2】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 유구현황도



【사진 4】 8차 조사지역 구역현황도

3. 조사내용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들은 최소 2차레에서 최대 4차레까지 중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기 건물지들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증개축된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된 건물지들은 축선이 일정치 않은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복합적인 예불공간을 가진 건물지군이 높고 낮은 축대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고려시대 사찰 건축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³⁾.

본 보고문에서는 1칸의 보칸에 도리칸을 길게 조성한 행각형태의 건물을 담장처럼 두른 후 그 안에 중심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들을 배치한 형태⁴⁾의 건물지군을 한 단위로 묶어 가~마구역으로 명명한 후 이에 따라 내용을 기술하였다.

1) 가구역

가구역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도리칸이 동-서 방향으로 긴 13호((7)×1칸), 7호 건물지(13×1칸)⁵⁾와 남-북으로 긴 12호((12)×1칸), 14호((3)×1칸), 15호(7×1칸)를 담장삼아 조성된 건물지군이다. 가구역의 중심건물은 1호 건물지(4×3칸)로 그 북편에 2호(7×3칸), 6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편에 5호((3)×1칸), 4호(2×1칸), 3호(3×1칸) 건물지가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1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의 앞뜰 사이에 20호((2×1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다.

1호 건물지는 동서 24.7m, 남북 13.4m의 기단 위에 조성되었고, 기단석축의 전면에 2개소의 계단지가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계단에는 담도를 시설하였다. 담도 사이에는 적심시설 1기와 소형 장방형시설이 확인되는데,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중심건물 앞뜰에 위치한 점을 통해 볼 때 조경과 관련된 시설의 기초로 추정된다.

3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서편에 위치하며, 동서 17.3m, 남북 9.0m의 기단위에 조성되었다. 3호 건물지의 남편으로 2개소의 계단지와 담도가 확인되며, 그 주위를 담장으로 둘러싼 것으로 보인다. 담도 사이에는 1호 건물지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장방형시설이 확인된다.

12호는 남북방향으로 축조된 건물지로 가구역의 서편 담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14호, 15호 역시 남북방향의 건물지로 동편 담장 역할을 하고 있다.

13호 건물지는 동서방향 건물지로 가구역의 북편 담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축조된 7호, 32호 건물지가 남편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7호 건물지에서는 사용 중 필요에 의해 수차례 증개축이 이뤄진 흔적이 확인된다.

가구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볼 때 이에 속한 유구들은 증개축 과정에서 약간의 중복관계가 관찰되기는 하나 모두 법천사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고려시대(12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3호 건물지만 후대(조선전기)에 축조된 것

3) 김동욱, 2007, 『한국 건축의 역사』.

4) 일반적으로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院’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천사지의 경우 기존의 원의 개념과 다른 양상을 보여 일단 구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차후 논의를 통해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예정이다.

5) (도리칸수 × 보칸수), ()안에 표시된 숫자는 잔존칸수.

으로 보인다.



【사진 5】 가구역 조사 후 전경



【사진 6】 가구역 1호 건물지 전경



【사진 7】 가구역 2호 건물지 전경



【사진 8】 가구역 3호 건물지 전경



【사진 9】 가구역 3호 건물지 서편 계단



【사진 10】가구역 4호건물지 북편 석실유구



【사진 11】가구역 12호 건물지 출토 막새편

2) 나구역

나구역은 조사지역의 서편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으로 긴 도리칸을 갖고 있는 8호(6×1칸), 26호(4×2칸) 건물지와 남-북으로 긴 10호(7×1칸), 21호(9×2칸) 건물지로 둘러진 건물지군이다. 나구역의 중심건물은 9호 건물지(5×2칸)로 기단석축내에 시기차가 크기 않게 중복된 형태의 적심군이 확인되어 필요에 의해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2】나구역 전경

9호 건물지는 남편의 26호 건물지와 연접해 있으며, 북편의 8호 건물지와 사이에는 마당을 조성하였는데, 마당 내부에 남북방향의 좁고 긴 석축시설이 확인된다. 이 시설의 용도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8호, 9호 건물지를 연결시키는 위치에 있으며, 내부에는 기와를 세워 박아 견고함에 신경을 쓴 점이 특이점이다.

21호 건물지는 나구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단에는 출입시설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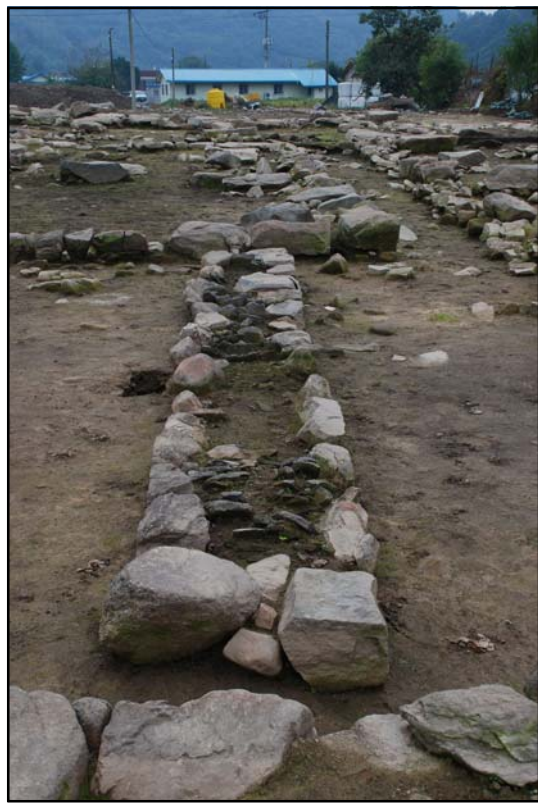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나구역은 주출입시설이 북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가구역, 다구역의 건물들과 소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구역의 서편에 위치한 10호 건물지의 기단석축위에는 담장시설이 확인되는데, 10호 건물지 내부 적심시설의 배치 상태를 통해 볼 때 이 담장시설은 사용 중 필요에 의해 증축한 시설로 판단된다.

나구역도 가구역과 동일하게 증개축 과정에서 약간의 중복관계가 관찰되기는 하나 모두 법천사의 최전성기에 해당하는 고려시대(12세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3】 나구역 9호 건물지 전경



【사진 14】 나구역 9호 건물지 북편 외부시설



【사진 15】 나구역 10호 건물지 전경



【사진 16】 나구역 10호 건물지 서편 기단

3) 다구역

다구역은 조사지역의 동편에 위치하며, 가·나 구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담장역

할을 하는 행각형태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형태는 아니고, 고려시대 건물지와 조선 전기 건물지들이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즉 고려시대 건물지인 22호((3)×2칸), 24호((5)×1칸), 25호((5)×1칸)와 조선전기 건물지인 35호((4)×1칸), 36호((7)×1칸)가 서로 중복된 상태로 위치한다.

22호 건물지는 남편에 중복된 16호 건물지로 인해 현재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가구역·나구역·다구역 사이에 조성된 ‘T’자형 마당시설의 길목에 위치한 점등을 통해 볼 때 출입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24호, 25호 건물지는 모두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축조되었는데, 북편의 일부가 후대 유구인 35호 건물지에 중복되고, 남편은 역시 후대 유구인 16호 건물지 및 그와 관련된 석축시설과 중복되어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36호 건물지는 35호와 직교하여 남북방향으로 축조되었다.

다구역은 고려전기에 조성된 건물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후대유구인 조선 전기 건물지들이 동편에 일부 중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17】 다구역 전경



【사진 18】 다구역 22호 건물지

4) 라구역

라구역은 조사지역의 남동편에 위치하며, 16호(3×3칸), 17호(5×1칸), 18호((6)×1칸), 19호(5×1칸), 29호((5)×(4)칸), 31호(9×1칸), 38호((4)×1칸), 39호((6)×1)칸 건물지와 그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라구역 건물지들에서 출토된 백자 등의 유물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16호 건물지는 다구역 내 고려시대 건물지인 22호, 24호 건물지에 후행중복한다. 17호 건물지와 18호 건물지는 남북방향의 담도시설로 연결되어 있는데, 치석된 장대석으로 외곽을 맞춘 후 내부에 상면을 다듬은 활석을 부석한 모습이다(담도 폭 2.3m). 19호 건물지 남단에서 석등 하대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1기가 확인되었는데, 지대석과 기단 없이 적심 위에 안치되어 있으며, 간주석 이상은 결실되었다.

29호 건물지의 내부에서는 중복의 흔적이 확인되며, 건물의 서편에 출입을 위한 계단시설이 있다.

라구역의 동편에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축조된 38호, 39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다구역의 36호 건물지와 축선을 같이 하고 있다. 라구역의 남편에는 마구역의 30호 건물지와 나란히 축조된 동서방향의 31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 19】 라구역 전경



【사진 20】 라구역 16호 건물지 전경



【사진 21】 라구역 17호 건물지 앞 담도



【사진 22】 라구역 출토 연화대석



【사진 23】 라구역 29호 건물지 서편 계단



【사진 24】 라구역 31호 건물지 전경

5) 마구역

마구역은 조사지역의 남서편에 위치하며, 27호((4)×2칸), 28호((4)×(4)칸), 30호((8)×1칸) 건물지와 그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마구역에서 확인된 건물지들은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구역 내부에 설치된 1차 시굴조사 당시 시굴트렌치 상의 토층과 마구역의 남단에 위치한 30호 건물지 기단 하부 토층을 통해 볼 때, 점토와 모래를 켜켜이 쌓아 지정한 후 건물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28호 건물지 동편에는 평면방향 우물지가 위치하고 있는데(상면 2.2×2.1m, 깊이 4.7m), 장대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잔존상태로 미루어 볼 때 상단 3단은 근래에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27호, 28호 건물지의 북단은 우물과 연결된 배수로와 연결하여 있는데, 이 배수로는 주변 유구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조선전기까지는 개보수 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5】 마구역 전경



【사진 26】 마구역 배수로 전경-서에서



【사진 27】 마구역 우물 전경



【사진 28】 마구역 우물서편 배수로 모습

6) 기타구역

이번 조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5개 구역 외에도 조사지역의 경계에 위치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유구들이 있다. 그 중 33호, 34호·37호는 조사구역의 동단에 위치하는 도로와 맞물려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37호 건물지는 장대석을 재사용하여 기단을 조성하였는데, 그 하단에 중심축을 달리하는 선대의 할석조 기단이 중복되어 있다. 한편 40호 건물지의 남편에는 방형적심시설과 함께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6각형 석재가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확인되었다. 이외에 조사지역의 남단 경계에서도 건물의 기단석렬로 추정되는 “ㄴ”자형 석렬 1기와 다중의 석렬군이 확인되었으나 민가조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훼손되고, 조사구역 경계에 걸쳐 확인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진 29】 기타구역 방형적심시설과 육각형 석재



【사진 30】 기타구역 남쪽경계 석렬유구

4. 출토유물

이번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과 유사하다. 다만 조사지역의 남편과 동편 일부지점에서 조선시대 건물지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조선전기 백자들과 분청사기편의 출토예가 보인다.

출토유물 중 기와류는 원형과악이 가능한 대형 치미편이 조사지역 남동편 와적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무문의 높은 주연부를 갖는 고식의 단판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들과 연당초, 꺾수문 암막새 등 와당류도 다수 출토되었다. 한편 기와에 새긴 명문으로는 ‘鳳?’銘과 ‘口(?)本王日’ 명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의미과악은 어렵다.

도자기류는 인화문이 시문된 경질타날문토기 등 나말여초기의 유물들을 위시하여 고려시대에 조성된 청자, 백자들과 도기류들이 확인되었고, 조선전기에 조성된 백자, 분청사기들도 출토되었다. 한편 고려시대 자기들과 함께 월주요산으로 추정되는 청자완편과 송나라 자기로 추정되는 복소(覆燒)법으로 소성된 청백자편 등 중국제 자기류도 소량 출토되었다.

금속류는 금동불(기고 5.6, 두께 0.8, 견폭 1.6) 1점, 청동제와 철제 말 등과 함께 철정, 자물쇠 등의 생활용품, 청동방울, 철제사슬, 중국 동전도 출토되었다(【표 2】참고). 그 중 금동불은 라구역의 31호 건물지 적심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마멸이 심하여 정확한 현상을 살피기 어려우나 상호나 옷주름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금동불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통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는 금동불 입상으로 관찰된다.

【표 2】 조사구역 출토 동전

동전명	서체	시기	출토위치	비고
희령중보(熙寧重寶)	예서(隸書)	북송 신종(1068~1077)	건물지 7호 남편 마당 구지표	1점
원풍통보(元豐通寶)	행서(行書)	북송 신종(1078~1085)	건물지 7호 남편 마당 구지표	2점
원풍통보(元豐通寶)	전서(篆書)	북송 신종(1078~1085)	건물지 7호 남편 마당 구지표	2점
정화통보(政和通寶)	진서(眞書)	송 휘종(1111~1117)	건물지 7호 남편 마당 구지표	1점



【사진 31】 출토유물-수막새



【사진 32】 출토유물-암막새



【사진 33】 출토유물-치미편



【사진 34】 출토유물-중국자기



【사진 35】 출토유물-고려청자



【사진 36】 출토유물-조선시대 자기류



【사진 37】 출토유물-금동불입상 전면



【사진 38】 출토유물-금동불입상 후면



【사진 39】 출토유물-청동제 말



【사진 40】 출토유물-동전

IV. 조사성과

법천사는 통일신라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 중기에 가장 큰 사세를 유지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며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나말여초기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유물을 공반하는 건물지들이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나말여초에서 조선전기에 이르는 40여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찰건물지 유적 중 최대 규모에 달하는 건물동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나말여초기의 가람배치에 관한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사찰 건물지 발달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물지 중에는 마치 관아 건물을 연상시키듯 좌우에 익사를 거느린 대형 건물지도 확인되었으며, 이 건물지를 중심으로 행각형태의 건물지들을 둘러 중심건물의 위계를 짐작케 한다. 한편 건물지 주변으로 깊이 4.7m에 달하는 대형 우물을 비롯하여 건물지 사이를 거미줄처럼 엮은 배수시설들이 확인되어 당시 치수시설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물지 앞 마당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할석을 부석하여 조성한 답도시설을 비롯하여 석등의 하대석으로 보이는 복련 연화대석, 6각형 지대석 등이 확인되어 신앙뿐만 아니라 조경시설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헌으로만 알려져 있는 법천사의 창건기 유물인 나말여초기로 편년되는 인화문토기편, 고식연화문 와당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 연화문 와당, 치미 등 법천사의 전성기로 알려진 고려중기 유물과 함께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 등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주로 확인되었다. 한편 건물지의 적심부에서 소형 금동불 입상 1점이 출토되는 등 청동제·철제 말, 청동제 방울, 동전 등의 금속유물도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지역 내 시굴 트렌치에서 8세기말로 편년되는 당대(唐代) 월주요에서 생산된 옥벽저(玉璧底) 청자편을 비롯하여 송대(宋代) 경덕진요 또는 정요에서 소성된 청백자편 등 중국산 고급자기편들이 출토되어, 법천사가 대외교류에 활발했던 고려왕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대외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편년은 법천사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인 고려 중기와 사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전기에 조성된 유구로 대별되며,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창건기에 해당하는 8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유물과 폐사시기에 근접한 조선 중기 유물도 수습되어 차후 각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된다면 법천사의 창건에서 폐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설명회 자료

원주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발 행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주 소 | (220-938)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4층

전화번호 | (033) 743-8916~7

F A X | (033) 743-8920
